

# 與, 바짝 앞드리며 한 표 호소... “백번천번 사죄” “무한책임”

### “국민 상식과 괴리 있어...죄송하고 송구스럽다”

### 이낙연, 부동산 정책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도

### 朴-吳, ‘더블스코어’ 격차...사전투표 반등 노력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바짝 앞드리며 한 표를 호소했다. 보궐선거 판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지지층에 읍소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산에 출동해 “백번 천번 사죄한다”고 몸을 낮췄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없었으면 좋았을 선거다.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후보로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동산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민의 분노가 큰 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 행렬에 동참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우리의 상식이 국민의 상식과 괴리가 있었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용기가 부족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지만 애써 부인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께 사죄할 것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사죄해야 한다. 대신 돌아선 국민의 마음은 정책의 유능함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표심에 호소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일을 제대로 못하니 한번 화끈하게 밀어달라 호소하니 국민이 ‘제대로 일 좀 해보라’고 180석을 화끈하게 밀어줬다”며 “그래서 제대로 일 좀 해보려 시작했더니 부산시장이 사고가 나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당내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는 박성

민 최고위원은 “청년의 마음속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외침에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격차를 좁혀달라는 절규에 집념여당으로서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런 터에 몸을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약속하

며 대출 완화와 청약 확대 등도 내걸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들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겠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거듭 고개를 숙이며 ‘읍소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잇단 사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박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5일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 도와주시시오”라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3월29일 선대위 회의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LH 사태 이후에도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당 후보에 대한 ‘네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티브’에만 집중했던 선거 초반과 확연히 달라진 자세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읍소 전략에도 박 후보와 오 후보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다음달 2~3일 사전투표를 받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선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했던 만큼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박성준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우리 당 입장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지지층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에 투표 독려에 힘을 쓰고 있다”며 “LH 사태, (야권) 단일화에 의한 컨벤션, 김상조 정책실장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악재였는데 이번주가 지나면서 악재가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미안마 추가 제재 검토...필요시 軍수송기로 교민 철수”

###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신기자 간담회...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 예정”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월 31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 사태가 악화될 경우 특별기나 군 수송기를 투입해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준비도 갖추

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내신기자 간담회에서 “미안마 사태와 관련해서는 폭력 방지 라든지 민주질서 회복, 구금자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3500만명의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현지 공관, 교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유사 시에는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차 제재를 가했지

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필요하면 우리 교민들을 즉각 철수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철수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내에 상당수의 교민을 철수시키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별기나 또는 우리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지공관에서 교민사회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하면 비필수 인원부터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 吳 “치매환자 발언? 文 아프게 받아들일 표현은 독재자”

### “분노한 마음에 했던 비유적 표현...이후론 쓰지 않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중증 치매환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대통령을 보며 분노한 마음에 나온 비유적 표현이고, 이 시간 이후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 후보는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번 선거기간에 한 표현이 아니고 작년 재직년에 광화문 조국 집회에서 연설하며 분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전부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표현을 썼다. 그 후 문제가 되자 이 표현도 쓸 수 없다면 어떤 강력한 비유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하니

로 법안과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는 독재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서울시장 공동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철학을 같이 하고 정책을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시정 운영 형태다. 독일도 연립정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와 안 대표는 만날 때마다 두 손을 굳게 잡고 약속한 게 있다. 둘 다 새정치의 대명사였다. 진짜 새정치할 시대가 됐으니 보여드리자는 것이다. 아마 놀랄 것”이라며 “결코 자리 나눠먹기 수준에 머무는 공동경영이 아니다. 철학과 원칙을 함께하고 만나서 정책을 조율하며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연립정부고 상생과 협의의 정치구나 라는 걸 시민들이 보고 동의하는 형태로 서울시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